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871호 현대불교

29

2012년 1월 18일(음 12월 25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냥 딱딱 뇌버리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2(남): 스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꿈을 꾸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본 적도 있고, 금빛 부처님을 본 경험도 있고, 지옥고에 시달리는 인간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꿈속에 어떤 사람이 내 몸을 뚫고 들어가 뒤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은 숫자를 세다가 100까지, 때로는 10까지 세고 다시 거꾸로 세어 하나에 이르자 '나'라는 말이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대학시절에 신(神)에 대한 강의를 듣고 깊이 공감했던 적도 있고, 초등학교 때는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경을 헤매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내 마음속에 신이 탁 버티고 있는데요, '나'라는 의미는 무엇이든 신이 내 심중에 있다는 생각은 바른 것인지 큰 스님의 가르침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스님: 여러분이 다 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움추거리고 그러죠. 신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자성신(自性神)이라고 그러죠, 자성신! 이 자성신이 있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데서 외부의 모든 것을 한마음으로 돌리는 거죠, 사실 보이지 않는 데서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자성신의 마음, 이 자체는 내가 없기 때문에 만 명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려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용도에 따라 그 자체의 작용을 잘나잘나 하게 해서 잘나에 해 놓고 잘나에 나고, 잘나에 들고 잘나에 나는 겁니다. 출창 들어만 있는 게 아니라 들고 가는 거죠, 이렇게 양쪽 손으로 작용을 해야만 이 정상이지 작용을 못하면 병신 아닙니까, 그와 같이 한 잘나에 들었다가 한 잘나에 난다 이 겁니다.

만약에 이 공부를 아주 철저히 한다면, 몸속에 있는 중생들이 전부 화(化)해서 보살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식만 가지고도 만 개의 의식을 만들 수도 있으니 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천부당만부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정말 헤어질 수 없이 여러분이 그 묘법이라는 자체를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누가 대학 시험을 본다 고 하는데, 쉽게 비유하자면 무조건 남의 집에 침입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스님을 봤다든가, 알았다든가, 급하니까 스님을 방편으로 불렀다든가, 주인공에 스님의 마음과 일체제불의 마음이 한군데에 들

어 있으니까 '한마음 속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다!', '해 주시오!' 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에 한해서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만 알았지, 급할 때 쓰도록 미리미리 관하는 방법을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서 손톱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이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렁이 속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지렁이가 되어 들어갈 때 저항력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 때문에 거기에 합세를 해 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음에 들어서 통신망을 딱! 해 주고 그 머리에 밝은, 모든

것을 낼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본인 자신이 그것을 도통 한 번도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을 때에는 통에다가 기름을 부으니까 그냥 통이 새거나, 통이 없어서 기름을 아무리 부어도 거기 담이지 않습니다. 그런 형국이나 같은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진지하고 실천적이며, 현실적으로 진실하게 자유자재할 수 있겠느냐 할 때 아주 특이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저 남이 이렇게 한대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왜냐? 자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라는 것을 세우기 때문에, '자기

가 배웠고 이 사회에서 활동도 했고, 남자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뭐 그가...' 하는 그 아집이라고 할까요? 아상, 아집, 그런 문제 때문에 딱 가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세계 50%의 관습에 쫓은 머리로써 살아나가니까 물질만 보이지, 안 보이는 무심의 도리, 정신세계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해서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딱 딱칠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 방편으로 말할 때, 가는 길이 있으면 오는 길이 있어야 작용이 아주 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 가는 길만 알지 오는 길을 모르니까, 오는 놈은 가는 길을 모르고 오는 놈은 오는 길을 모르니 이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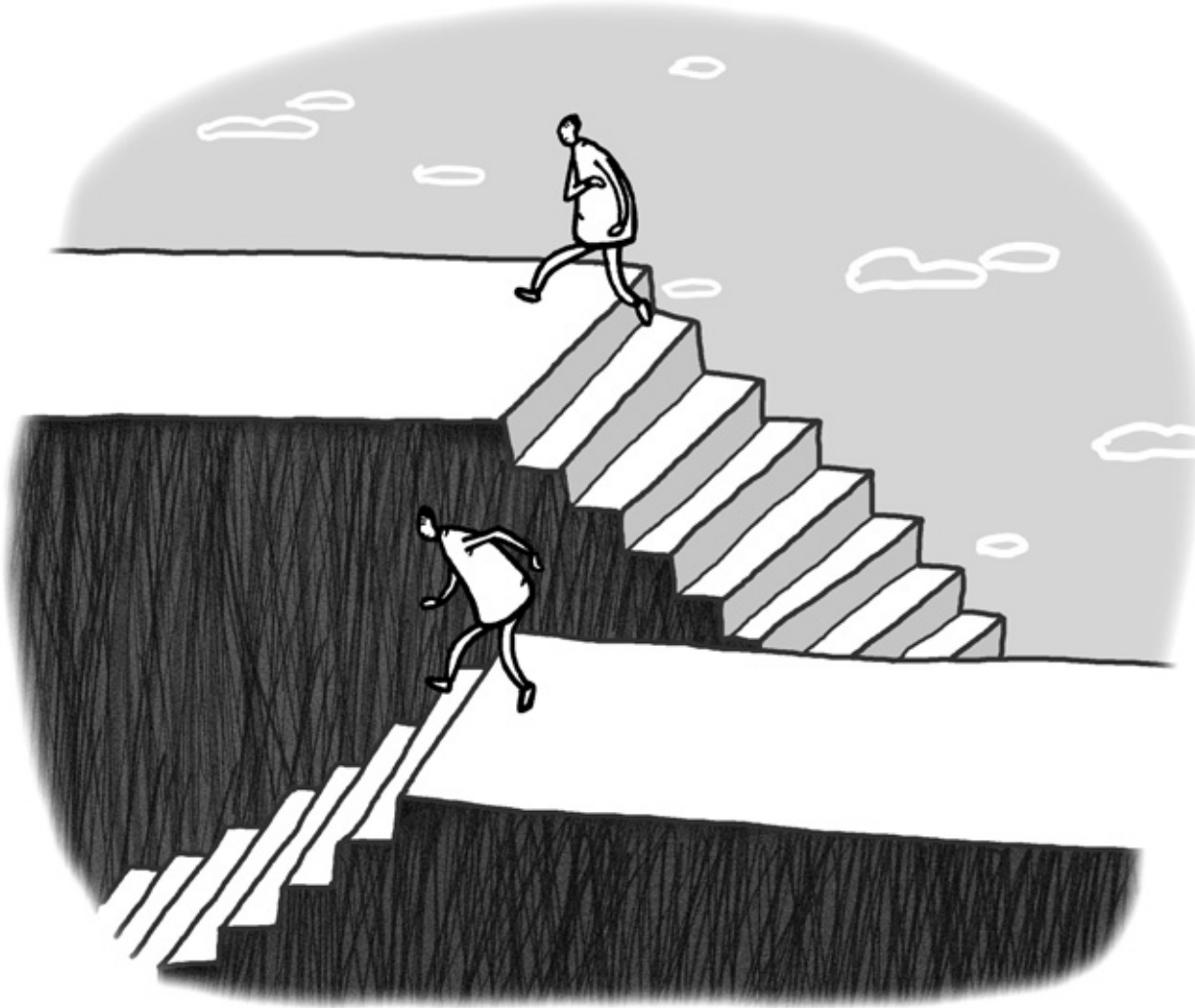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어떤의 작용이 됩니까? 이 세상 이치가 시발점과 종점이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은 자기의 시발점에서 사람들이 내리기도 하고 타기도 하며, 자기 종점에서 자기는 내리지만 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니 시발점과 종점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이게 바로 만사가 융통할 수 있는 작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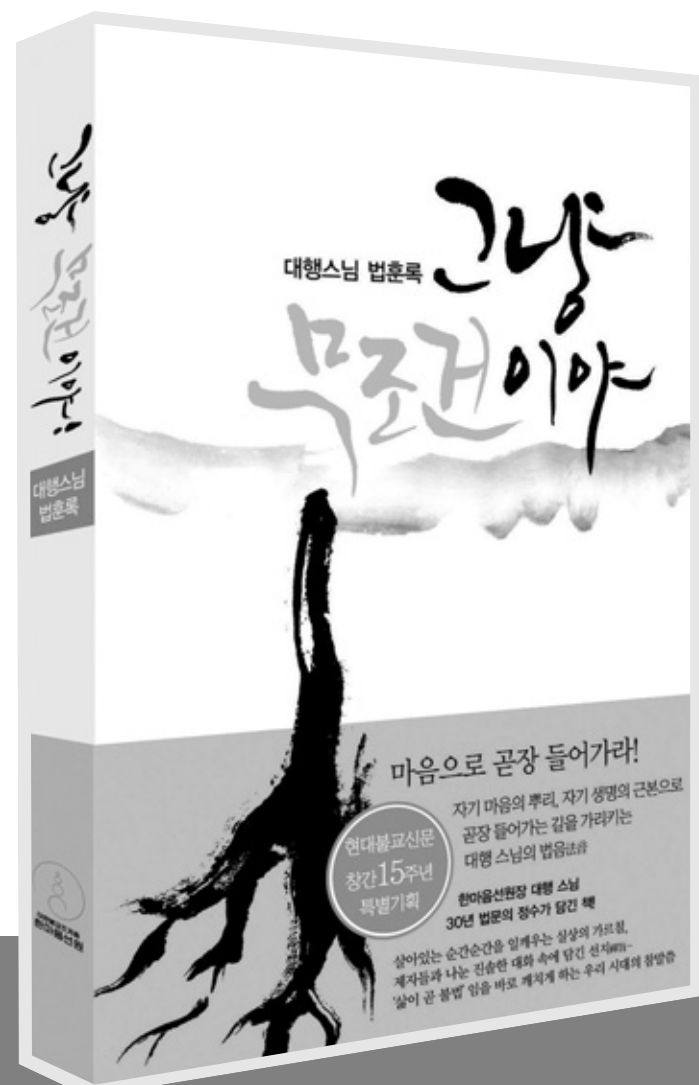
왜 만(凡)자의 끄트머리를 요렇게 해 놔습니까? 그냥 둥그렇게 해 놓기만 하지, 왜 또 팔을 그려 놔습니까, 이렇게? 그것은 바로 이 원체가 있으면 움추거리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 더하고 탈함도 없이 생각을 안 내고 생명만 살아 있다면 아무 걱정이 없죠, 목석이니까. 하하하...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든 이 끌어가고자 하고, 좀 남들처럼 살아 보고자 하고, 그 아픈 거와 슬픈 거와 행복한 거를 알고, 그 행복한 맛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밀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지금 작용을 하고 살죠. (잠깐 멈추시고) 말을 하다가 물어버렸어요. 허허하... 말을 하다가도 길이 하도 많아서... 어, 참 그렇지!

그래서 만(凡)자를 그렇게 해 놔는데 그것이 바로... 법륜마크라고 하는 것도 바로 팔 수레 바퀴, 이것도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 안에 다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끄트머리가 요렇게 돼 가지고 돌아가는 그 작용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둘이 아닌 자체를 아시라 이겁니다. 중생은 부처 속에서 나왔고, 부처는 중생 속에서 나왔으니 이것을 어떻게 불려야 되느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작용 때문에 바로, 둘이 하나로 붙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불이 번쩍 일어나듯, 불이 켜지듯, 인간도 그러합니다. 이 세상 이치도 그러하고요. 잡아당기는 게 없다면 끄는 게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지구가 어떻게 이렇게 온전하게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자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땅에 붙어서 다닙니다. 모두 고마운 줄 모르죠? 이제 질문 다 하셨습니까?

질문자2(남):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주인공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며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자주자주 허리가 아파서 여러 모로 통증을 느끼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이 심하니 때로는 주인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문 중에서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삼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마음은 항상 한군데다 일념으로 두셔야 합니다

29면에서 계속

공을 원망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고통을 겪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약을 써서 치료를 해서 다 나왔다고 생각 되면 자꾸 재발을 하니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프게 한 것도 주인공의 인연으로 한 것이요, 아픈 육신도 주인공의 것이니 당신만이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겠지!' 하고 계속 관(觀)하고 믿고 맡겼더니 며칠 전에는 심한 고통은 사라졌습니만 지금까지 개운치 않습니다.

크스님: 개운치 않게 마음을 썼으니까 개운치 않죠. 하하하... 어딘가가 모자라니까 그렇지, 모자라지 않은 바에야 왜 그럴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었죠. 병원의 의사입니다. 수술을 했는데 잘못 건드려 가지고 잘못했는데, 의사들은 알죠. 이 의사 저 의사 불러다가 다 해 보니까 이젠 뭐 급박했었어. 이제 문도 닫고 큰 문제가 벌어질 것을 생각하니 그냥 눈앞이 캄캄해진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알았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그 알았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것이 가벼운 대답이었다면 아마도 그건 인연을 겁니다. 무거운 대답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시각부터 달라지면서 부위가 그냥 다 정상적으로 났다는 겁니다. 의사인데도 '이건 내가 의사 할 만한 가치가 없구나.' 하는 생각에서 그냥 탁! 아예 만사가 다 버려지더라고요. '나는 의사 될 자격도 없고, 우리가 모두 거기만 매달려서 연극배우처럼 사는구나.' 하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그랬듯이...

그때, 그런 걸 좀 알려면... 지금도 시들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전력을 다해서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파서 재고 재고, 또 들고 또 들고 해야 합니다. 육조 스님도 돌아 안 도리에서 나뉘는 도리를 배우려고 그 12년 동안이나 또 몽쳐 놓고 그렇게 하셨죠. 몸은 팔방으로 돌아다녔으나 마음은 한군데다 항상 일념으로서 두셨다는 얘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이 천차만별로 살림살이를 사시겠지만 그 살림살이는 바로 여러분의 그 불성, 한마음 속에서 들고 내는 겁니다. 일체가 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고 모두 살죠? 똑같이 숨 안 쉬면 죽을 겁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숨 안 쉬고는 못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일체 만물만생이 다 숨쉬고 살듯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포괄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개별적이고 하찮은 나, 주인공,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얼마나 귀중한 한마음입니까. 이것은 개별적인 자기 한마음이 아닙니다. 이젠 지수화풍이 동시에 같이 하는 것인 반면에 또 그 지수화풍 속에서 갈라지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지수화풍이 있기 이전에는 어땠구요, 또 천차만별의 이름이 전부 모여서 그걸 이룬 거 아닙니까. 산소와 수소가 한데 합치니까 물이 됐듯이.

그러니까 그 허리가 그대로 낮게 되는 거죠. 허리 뿐만 아니라, 자기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서 '아무리 해도 이거는 낫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도 있고, 또 입이 돌아가거나 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냥 침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아만나오. 그런 걸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죠.

애초할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말해 볼까요? 이것을 뛰어넘으려면 죽고 사는 것도 뛰어넘어야 하는데, 저렇게 저러는 거를 그렇다고 해서 '그건 법이 아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하하하... '야! 그러하면 뛰어넘을 수 없다.' 할 수도 없고, 그냥 가는 대로 뒷받침만 하고 가는 거지

크스님: (잠시 시계를 보시고) 아니, 저가서 (손가락으로 대중 가운데 한 분을 가리키면서) 질문할 양으로 손을 아까부터 들었는데 오시라고 그러세요.

사회자: 그 마음이... 나오시겠어요, 구지비?

크스님: 하하하...

사회자: 간단히 하세요.

질문자3(남): 크스님,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서 중생을 교육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고를 겪으면서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관, 착, 놓으라는 얘기를 생활화하고 있는데, 관과 착과 놓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같은 것 같은데, 그게 같은지요? 아니면 엄연히 다른지요? 그래서 그 관과 착과 놓는 것이 같다면 그 후에 자유로워지는데, 그 자유로워지는

걸어오셨죠? 한 발짝 한 발짝. 예? 걸어오실 때에 그 발자취를 걸머지고 오지도 않았는데 그게 착이 됩니까? 이 세상살이는 만사가 다 찰나찰나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정돼서 요건 요렇다 하고 집어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질문자3(남): 범부의 착이 없으면 관이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는 집착과 애착이...

크스님: 원칙은요, 착도 없고 관도 없어요. 관도 놓고 착도 놓고 모든 것을 여려한 그대로... 그것은 바로 물리가 터져야 됩니다. 이 세상살이가 그냥 본래 놓고 가는데 또 놓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체가 돌아가는 자체, 공(空)해서 돌아가는 이치에서 그것을 주시하고 관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관하고 돌아가니까 그것이 참선이 되는

크스님: 뭐가요?

질문자3(남): 소위 달마 대사는 고승 선사로서 대오 견성을 하신 것이 중요한 거고 그분의 실체가 중요한 건데, 달마의 수염이 있느냐 없느냐는 동쪽에서 왔든 서쪽에서 왔든 그게...

크스님: 수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도리를 아셔야 합니다.

질문자3(남): 그렇죠? 그러니까 유(有)가 무(無)고 무가 유겠죠. 그렇다면 그게 동쪽에서 왔는가가 답이 되겠습니까?

크스님: 동쪽이든 서쪽이든 뭐냐고 했죠?
질문자3(남): 예, 그랬죠.

크스님: 예. 그런데 어떻게 동쪽만 동쪽이라고 하겠습니까? 동쪽이나 서쪽이나, 동쪽에 왔으면 서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이니, "충충대를 올라간 까닭은 무엇이나?" 이런 거나 똑같아요. 지금 여기 올라오실 때 여기 올라온 까닭은 무엇이나? 그럼 내려가는 까닭은 또 무엇입니까?

질문자3(남): 그야 아무런... 무가 유고 유가 무다는 그 말씀이요? 그렇게...

크스님: 그렇게 말하면 아시려고 할 게 아닙니다. 이게 하하하... 말로만 안다면 요만한 거 하나도 해결 못합니다. 지금 실상으로서 실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만큼!

질문자3(남): 스님, 감사합니다.

사회자: 우리 한마음 도리가 하나 더하기 하나는 꼭 풀이다. 이런 이치가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마음 도리를 자유자재하게 활용을 해서 자유인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뜻한 바 공부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크스님께서 던져 주시는 것, 맛있는 음식, 무엇이든지 받아 자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 나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큰 스님,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크스님: (환장하시며) 하나도 하나도, 둘도 하나도, 셋도 하나도, 만(萬)도 하나도, 하하하... 십만도 하나도. 이 도리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가 십만이 될 수도 있는 숫자가 되고,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 작용 자체가 실체가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구요. 바로 실제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범회 식순을 모두 마친 후) 이것으로써 새해맞이 범법회 범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크스님: 웃고 행복하게 사시길 빌어 마지않습니다.

대중 일동: 고맙습니다.

* 위 문은 1992년 1월 5일 범법회범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질세계 50%의 관습에 젖은 머리로써 살아나가기 때문에
물질만 보이지, 안 보이는 무심의 도리, 정신세계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해서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딱 딱될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 방편으로 말하자면

가는 길이 있으면 오는 길이 있어야 작용이 아주 유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면 가는 길만 알지 오는 길을 모르니까,

오는 놈은 가는 길을 모르고 가는 놈은 오는 길을 모르니

이것이 양면의 작용이 되겠습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죽고 살고 이런 거를 떠나야 만이 된답니다.

질문자2(남): 자주 자주 크스님을 뵙지를 못하고 저희들이 공부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크스님: 그까짓 거 캄핑 나와서 놀다 가는 거 그냥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팍팍 나 버리지, 그놈의 걸 뭐 때문에 붙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기 산악회 놀러 가시죠? 놀러 가실 때는 바로 탄생하는 겁니다. 다 놓고 들어올 때는 별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잠시 잠깐 가서 놀다가 올 거를, 뭐 그렇게 그냥 서서 찢고 뺏고 모두 살겠다고 애를 쓰고, 더 살겠다고 하하하...

질문자2(남): 높으신 법문 고맙습니다.

사회자: 지금 공기도 좀 싸늘해지는 것 같고, 우리 스승님을 우리가 위해 드리지 않으면 어느 분이 위해 드리겠습니까? 스님 모시고 밤새도록 여러분 질문...

것도 결실을 잘 맺어서 자유로워지는 것하고 결실을 못 맺고 자유로워지는, 소위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요. 관과 착과 놓는 것이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스님?

크스님: 놓는 거와 관하는 거와 착은 엄연히 다르죠. 놓는 거는 그냥 내던져 버리는 거고요. 놓아라, 쉬어라, 관한다 이런 거는 놓으면서 믿음으로써 들어가는 겁니다. 놓으면서, 즉 말하자면 한군데다가 일임을 하는 겁니다. 그냥 재료를 뭇물에 넣어서 갈려서 나와야 먹을 게 아닙니까? 그와 같이 관한다는 것은 자동적인 뭇물에 물건을 넣고 갈려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일체를 다 그렇게 하는 것이 관법입니다.

질문자3(남): 그런데 그 개체에 따라서는 의식들이 강한 것도 있고 고유의 특성이 있는데, 우리 개체의 중생의 신경에 관을 하면 형식적인 사리분별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관념 또는 착이 있어야만이 사물에 대한 제대로 관이 될 텐데...

크스님: 아닙니다. 지금 여기 올라오실 때에

거죠. 행선이나 좌선이나, 입선이나 와선이 전부 한데 합쳐져서 참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 참선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게.

질문자3(남): 스님, 심경, 마음의 거울에 우리 주인공이 관과 착과 놓는 것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까? 이틀만 다르지 한 가지로 하는 건데...

크스님: 왜 착이 거기 붙습니까? 아니, 답답한 것마저도 거기 붙지 않습니다. '공했다는 말 자체도 공했으니' 이렇게 말이 들어가는 건데... 공했다는 자체, 공해서 없다는 자체도 없다는 겁니다. '그 없다는 자체도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착이 어째서 들어갑니까, 거기?

질문자3(남): 잘 알겠습니다.

크스님: 하하하 자기 자기를 발견해서 자꾸 계발을 해야 됩니다.

질문자3(남):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왜 달마는 수염이 없는가?" 하는 답에 "왜 달마는 동쪽으로 왔는가?"가 답이 되겠습니까?

십장생 福 포대화상 도자기

십장생 복 포대화상 도자기를 모셔둔 家에는
언제나 밝은 웃음이 그치지 않고 하는일 마다 만사형통하여 큰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천하를 다 포용하고도 남을 큰배와 언제나 밝게 웃는 모습으로 포대화상 속에든 복을 꺼내어 중생에게 나누어 주시는 포대화상 (약면)

도자기 옆면과 뒷면은 십장생 그림으로 사슴이 불로초를 물어다가 거북에게 건네주는 신비한 장면이며 아래위 여백을 실려 시원하게 처리하였습니다.

'KBS 진품명품'에서 해박한 지식으로 서예 감정을 하여 그 이름을 떨치신 **매산 김건원** 교수님의 글씨와 한국 화단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소림사 한국본부문화원 미술원장을 맡고 계신 **청곡 이한동** 화백의 그림으로 합작하신 십장생 포대화상 도자기



설날 파격 선물 SET (발송에서 배송까지 7일이 소요됩니다.)

도자기 외 사은품 6종 가격 ₩298,000 → 198,000원

① 십장생 장수 반상기 세트 6P (밥그릇, 뚜껑, 국그릇, 2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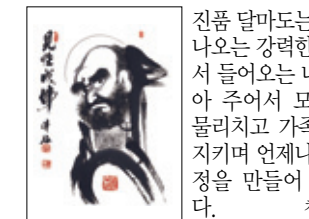
세끼 식사를 거르지 않고 제대로 하는 것이 천 가지 보약보다 낫다고 합니다. 중요한 식사를 하는 반상기(밥그릇, 뚜껑, 국그릇) 또한 소중한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③ 진품 포대화상도 작품 (10호)



진품 포대화상도를 집안에 모셔두면 가정에 화목을 이룰 것이고, 밝은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리며 밖에 있는 복을 집안으로 불러드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청곡 화백 작품

④ 진품 달마도 작품 (1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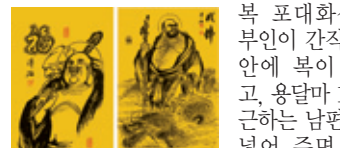
진품 달마도는 그 속에서 나오는 강력한 기가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액을 막아 주어서 모든 병마를 물리치고 가족의 건강을 지키며 언제나 아늑한 가정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청곡 화백 작품

② 소품 연약 약 찻잔 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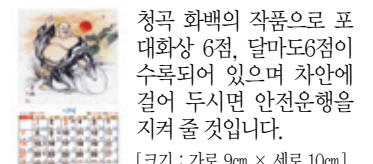
젊은 약이나 차를 따라 드실 때 편리한 소품으로 된 약찻잔 5피를 청곡 화백의 작품으로 연꽃이 들어간 예쁜 잔입니다.

⑤ 부부운 송금카드 2점



복 포대화상1점은 부인이 간직하면 집안에 복이 가득차고, 용달마 1점은 출근하는 남편 지갑에 넣어 주면 남편을 지켜 줄 것입니다.

⑥ 2012년도 미니카렌다 (차별이점용)



청곡 화백의 작품으로 포대화상 6점, 달마도6점이 수록되어 있으며 차안에 걸어 두시면 안전운행을 지켜 줄 것입니다. [크기 : 가로 9cm x 세로 10cm]

* (높이 35cm×둘레 90cm 제조원 여주 다양도에 최고급 여주 백자 (손으로 일일이 만든 작품이라 약간씩 차이가 있음)